

경성일보와 내지/외지 일본어신문의 연재소설 비교연구*

—나고야신문을 중심으로—

엄기권**

(e-mail : d-cometrue@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경성일보와 나고야신문 연재소설 비교 |
| 2. 나고야신문의 창간과 중앙지와의 경쟁 | 5. 나가며 |
| 3. 「일본신문연맹」과 「토요회(土曜會)」 | |

키워드 : 京城日報(Keijo Nippo), 名古屋新聞(Nagoya Shinbun), 連載小説(A serial novel), 内地·外地(Overseas/domestic), 日本新聞連盟(Nihon Shinbun Renmei), 土曜會(Doyokai)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외지 조선에서 발행된 경성일보(京城日報)와 내지의 신문, 그리고 다른 외지의 신문에 게재된 연재소설을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경성일보에 연재된 작품과 동일한 연재소설의 게재율이 높은 나고야신문(名古屋新聞)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경성일보는 1906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발행된 어용지로 1945년 폐간이 될 때까지 수많은 문예물들이 지면을 장식해 왔다. 특히 경성일보 지면에 게재되었던 장편연재물에 주목하여 그 서지정보를 조사해 보면 경성일보 창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는 경성일보에만 게재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137).

** 한남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 점차 동시대 내지의 지방신문은 물론이고, 대만, 만주와 같은 외지의 신문에도 적지 않은 작품들이 동시에 연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식민지 지역과 당시 내지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의 연재소설을 망라해서 정리한 선행연구로는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다카기 다케오(高木健夫)의 선구적인 업적이 대표적이다.¹⁾ 최근에는 일본의 신문사들이 신문사의 역사를 기록한 출판물과 몇몇 지방의 문예관련 기사를 정리한 보고서 등을 통해 지방신문의 연재소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문사의 문예관련 자료들이 다수 남아있다. 조선, 만주, 대만 등과 같은 구식민지 지역에서 발행된 신문들의 문예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연구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경성일보를 축으로, 동일한 연재소설의 게재 비율이 매우 높은 나고야신문을 하나의 샘플로 지정해 비교 분석하여, 실제 어떤 작품들이 동시 게재되었고 그 배경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또한 자료조사 중에 추가로 입수된 대만일일신보(台灣日日新報)의 연재소설 목록도 함께 보고하여, 당시 내지와 외지의 신문들 간의 제휴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나고야신문의 창간과 중앙지와의 경쟁

나고야신문은 1906년 11월 3일에 아이치현의 나고야시에서 창간된 일간신문이다. 1886년 3월에 창간된 「긴조 다요리(金城たより)」를 후에 헌정회(憲政會)의 의원이 되는 고야마 쇼주(小山松壽)가 나고야신문으로 제호를 바꿔 재창간했다. 같은 나고야시를 거점으로 하는 「신아이치(新愛知)」와 부수를 경쟁하지만, 1942년 9월에 신아이치와 병합하여 「주부니혼신문(中部日本新聞)」으로 통합된다. 신아이치는 나고야신문보다 조금 앞선 1888년에 창간된 일간지로 정우회(政友會) 계열의 신문이다. 「후쿠오카일일신문(福岡日日新聞)」과 함께 전국지 중에서 양대 신문으로 불린 지방지이다. 신아이치가 촌스러운 구석이

1) 高木健夫(1987) 『新聞小説史年表』 国書刊行會.

있었다면, 나고야신문은 참신하고 새로운 신문으로, 부인 강연회를 열어서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와 같은 여류 작가를 초대하는 등 신아이치와는 그 경향을 달리했다.²⁾ 또한, 나고야신문은 일찍부터 동일본과 서일본에 대해 ‘중부일본’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과 서, 그리고 중부의 「천하삼분론(天下三分論)」을 강조했다.³⁾ 천하삼분론은 1922년 12월에 고야마 쇼주 사장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중부지방의 상공업의 발전과 대도시 나고야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나고야신문 또한 동서의 전국지처럼 20만에서 30만부를 발행하는 신문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고야신문의 천하삼분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지, 특히 오사카의 양대 신문의 지방 진출이라는 시련을 극복해야 했다.⁴⁾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은 호시탐탐 부수를 늘리기 위해 지방으로 시장의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1922년 11월부터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은 규슈의 모지(門司)에서 2페이지의 부록 「세이부마이니치(西部毎日)」를 인쇄하여 오사카에서 발송되는 12페이지의 본지에 첨부하여 지방으로의 진출을 도모했다. 오사카아사히신문은 그보다 늦은 1925년 4월부터 모지에서 「규슈아사히(九州朝日)」를 인쇄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나고야에서는 1924년 4월 1일에 오사카아사히신문이 먼저 나고야지국 개설만 20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전국 균일정가 1엔을 나고야 지구만 신아이치, 나고야신문과 같은 80전으로 할인하여, 나고야에서 인쇄한 「도카이아사히(東海朝日)」 2페이지를 오사카에서 발송되는 본지에 무료 첨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4월 16일부터 부록 「주쿄마이니치(中京毎日)」를 나고야에서 인쇄하여 무료 첨부했다.

이와 같은 오사카아사히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나고야 진출에 신아이치와 나고야신문은 조간을 2페이지씩 늘려 12페이지를 발행했다. 또한, 두 신문은 마이니치신문이 오사카에서 본지를 인쇄하고 나고야에서는 석간신문의 발행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1924년 4월 7일부터 석간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12페이지였던 조간을 8페이지로 줄이고, 석간을 4페이지로 새롭게 발행

2) 小野秀雄(1982) 『日本新聞発達史』五月書房、p.476.
 3) 中日新聞社社史編纂室(1987) 『中日新聞創業百年史』株式会社中日新聞社、p.102.
 4) 山田公平(1997) 「名古屋新聞の自由主義的経営体制の展開—デモクラシー期から戦時体制期へ—」 『メディア史研究』第6号、ゆまに書房、pp.44-45.

한 것이다. 석간의 발행으로 그만큼의 배달비와 운송비 등 경영상의 부담이 배가 됐지만, 오사카의 두 신문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었다.⁵⁾ 결국 1년간의 격전 끝에 1925년 3월 오사카의 두 신문은 철수했지만, 또다시 찾아올 중앙지들의 지방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고야의 두 신문은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다.

예를 들면 고베신문(神戸新聞)⁶⁾의 경우 오사카의 거대 신문사들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블록(block)신문 혹은 지방신문의 연합체인 ‘신문 트러스트(trust)’를 구상했다. 먼저 교토에서 발행되던 「교토일일신문(京都日日新聞)」이 경영난을 겪자, 1923년 7월에 매입하고 8월에 정식으로 합병하여 교토일일신문사 내에 고베신문사 교토지점을 설치했다.⁷⁾ 1930년 3월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오사카에 본사를 둔 「오사카지시신보(大阪時事新報)」를 인수했다. 오사카지시신보는 도쿄의 「지시신보(時事新報)」의 자매지로 1905년에 창간된 신문이었다. 오사카의 양대 신문에 대항하기 위해 그 본거지에 위치한 오사카지시신보사를 거점으로 정한 것이었다. 교토와 오사카의 신문사를 인수하여 ‘신문 트러스트’를 실현시킨 고베신문사는 같은 달 28일자 1면에 「삼대신문합동선언(三大新聞合同宣言)」이라는 사고(社告)를 세 신문에 일제히 게재했다. 세 신문은 합동으로 운영되며 뉴스의 교류는 물론 광고의 공동 모집, 사업의 공동 개최 등의 업무 제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였다.⁸⁾ 이처럼 오사카의 양대신문사의 지방으로의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지방의 신문사들은 중앙신문들과 공방전을 벌이며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다.

3. 「일본신문연맹」과 「토요회(土曜會)」

오사카의 양대 중앙지들의 나고야 재진출의 움직임에 신아이치는 그 강구책

5) 앞의 책, 中日新聞社社史編纂室(1987) pp.154-155.

6) 고베신문은 1884년에 창간된 고베우신일보(神戸又新日報)의 대항지로 1898년에 창간된 신문이다. 초기 집필진으로는 후에 규슈일보의 주필을 맡기도 하는 시라가와 리요(白河鯉洋)를 주필 겸 편집부장으로 맞이하였고, 소설가 에미 스이인(江見水蔭), 동화 작가 구루시마 다케히코(久留島武彦)를 채용하는 등 겐유샤(硯友社)와의 관계가 깊었다.

7) 神戸新聞創刊百周年記念委員会社史編集部編(1998) 『神戸新聞百年史』 神戸新聞社、p.643.

8) 앞의 책, 神戸新聞創刊百周年記念委員会社史編集部編(1998) p.646.

으로 1930년 11월 15일에 원고 공급의 원활함과 합리화를 위해, 「후쿠오카일일신문」, 「가호쿠신보(河北新報)」, 「홋카이타임즈(北海タイムズ)」와 「일본신문연맹(日本新聞連盟)」을 결성한다. 4개 신문사 공동으로 원고를 구입하거나, 현상소설을 공동으로 모집하는 이벤트 등을 펼쳤다. 또한, 뉴스의 교류, 광고 분야의 제휴 등도 협력하여 지면의 향상, 코스트 삭감, 광고의 증수 등을 목표로 했다.

일본신문연맹을 주도한 신문사나 인물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1927년 판 『신문총람(新聞總覽)』에 실린 「지방신문의 연맹(地方新聞の連盟)」이라는 글을 통해 조금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지방신문은 너무나 독립성이 강하다.(중략)사설사론과 같은 것은 적어도 한 신문사의 주의주장을 나타내 그 독립성, 자존성을 표명하기도 하고, 위엄과 면목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문사와 협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의 범위에서는 예를 들면 소설을 비롯해 대중적인 읽을 것과 같은 것은, 시사문제 혹은 학술문예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집필을 의뢰하거나, 또한 특수한 기사보도에 대해서는 공통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통신교환을 하는 등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신문사 간에 상호 협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니, 있을 것이라 믿는다.(중략)규슈와 북해도와 나고야를 이어서 신문사의 삼각동맹을 만들거나, 혹은 센다이와 나가노와 오카야마 또는 히로시마와 연계를 꾀하거나, 혹은 도쿄의 한 신문과 규슈의 한 신문이 특수한 통신과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연맹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 등은, 신문사 상호 간에 큰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품위나 면목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⁹⁾

위의 글은 후쿠오카일일신문사의 당시 편집장인 아베 조타로(阿部暢太郎)가 쓴 것으로 지방신문사 간의 제휴를 통한 신문연맹의 결성을 주장했다. 우후죽순처럼 전국 각지에 설립된 신문사가 사설이나 사론과 같은 글은 신문사 고유의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소설이나 시사, 학술에 관한 기사들은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규슈, 홋카이도, 나고야를 잇는 신문사 간의 ‘삼각동맹’이나, 센다이, 나가노, 오카야마 혹은 히로시마와 같은

9) 阿部暢太郎(1993) 「地方新聞の連盟」 復刻版 『新聞總覽 昭和2年版』 大空社, pp.47-48.

지방의 신문사가 연계하는 단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아베의 제안은 3년 후인 1930년에 4개 지방신문사 간의 일본신문연맹의 결성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일본신문연맹의 사무국은 도쿄의 긴자에 두었고, 체계적인 조직 체제 아래에서 운영됐다.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1)특수기사(논문, 소설, 과학, 수필, 영화, 연예, 부인, 가정, 스포츠 등)를 각 방면의 제1인자에게 위촉, 가맹 4사는 동시 게재하고 경비는 일체 4사가 공동 부담한다. 2)가맹 4사는 각지의 중대한 뉴스를 교환한다. 따라서 중대한 사건 발생 시는 관계지역의 가맹신문의 정비된 통신망 동원에 의한 독자 보도를 그대로 다른 가맹사도 특종으로 보도할 수 있다. 3)광고매체로서도 4사 연맹의 기능을 발휘하여 효과를 높인다.¹⁰⁾ 이처럼 일본신문연맹의 4개 신문사는 각종 기사의 동시 게재와 특종 보도의 공유, 그리고 광고매체로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것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항시 오사카 계열의 신문사들의 지방 진출을 견제했다. 1941년에는 단체명을 「일본신문동맹(日本新聞同盟)」으로 변경하고 주고쿠(中国) 지방과 시코쿠(四国)를 대표하던 지역신문인 「오카야마합동신문(岡山合同新聞)」이 새로 참가하여 5개 신문사 체제로 재편되어, 이전과 같은 공동기구에 의한 기사의 교류와 자료와 특별기고의 채용, 문화사업의 공동개최 등을 실시했다.¹¹⁾

한편, 나고야신문은 신아이치의 일본신문연맹보다 늦은 1933년 3월에 내지의 「규슈일보(九州日報)」, 「오타루신문(小樽新聞)」과, 외지의 「경성일보」, 「대만일일신보」, 「만주일보(滿洲日報)」와 함께 「토요회(土曜會)」를 결성한다.¹²⁾ 1934년판 『일본신문연감(日本新聞年鑑)』에는 1933년 11월 현재 토요회의 회원으로 만주일보의 이노우에 마사아키(井上正明)와 요네노 도요미(米野豊実), 경성일보의 사토 이와오(佐藤巖), 대만일일신보의 나가이 쇼조(永井省三)와 나카야나기 가쓰지(中柳勝次), 나고야신문의 오미야 고자부로(大宮伍三郎), 그리고 오타루신문의 가토 계자부로(加藤敬三郎)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주필은 다카야마 후쿠라(高山福良)가 담당했다. 이와 같은 토요회도 앞의 일본신문연맹과 마찬가지로 공동 취재를 목적으로 하여 소설, 지평, 특전, 바둑, 장기, 만화 등을 공유했다.¹³⁾ 1936년에는 만주일보가 탈퇴하고 동시에 고베신문이

10) 西日本新聞社(1978) 『西日本新聞百年史』 西日本新聞社、p.342.

11) 山陽新聞百二十年史編集委員会編(1999) 『山陽新聞百二十年史』 山陽新聞社、p.175.

12) 앞의 책, 中日新聞社社史編纂室(1987) p.179.

13) 新聞研究所編(1933) 『日本新聞年鑑 昭和9年』 新聞研究所、pp.88-89.

새로운 가맹사로 참가하지만 2년 후인 1938년에 다시 토요일을 탈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¹⁴⁾

이와 같은 두 단체는 1935년이 되면 「일본전보통신사(日本電報通信社)」와 「일본신문연합사(日本新聞連合社)」의 양통신사의 합병반대운동에 규슈일보를 제외한 일본신문연맹과 토요일의 신문사가 함께 참여하여 반대운동을 벌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만주사변 이후 두 통신사의 통신보도의 격렬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비상시 일본의 국론을 통일하고 국제적인 선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통신사의 필요성이 육군성과 외무성에서 대두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의 합병에 후쿠오카일일신문은 1)경쟁 없이는 신문사도 통신사도 발전하지 못한다. 2)자유경쟁, 자유활동에 의해 언론보도의 사명이 달성된다. 3)정부의 지령에 의한 합병은 통제의 길로 빠지게 될 거라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합병이야기가 한창이던 1935년 2월부터 3월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사카아사히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이 본지를 모지에서 인쇄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즉, 전국의 유력한 지방신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일본전보통신사에 비해, 일본신문연합사는 오사카아사히, 오사카마이니치 등과 같은 8개 중앙지가 출자를 한 통신사였기 때문에 두 통신사의 합병은 지방의 신문사들에게는 앞으로의 경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었다. 결국, 1935년 4월 3일에 일본신문연맹의 4개사와 주코쿠신문(中国新聞), 그리고 규슈일보를 제외한 토요일의 5개사의 대표가 모임을 갖고 10개 신문사 연맹(후에 ‘십일회(十日会)’로 개칭)을 결성하여 반대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1936년 6월에 일본전보통신사는 결국 국책통신사 「동맹(同盟)」에 합병돼 버린다. 후쿠오카일일신문과 규슈일보가 동맹 통신사의 이사 신문사가 되어, 후쿠오카일일신문의 아베 조타로 편집국장과 합병에 찬성하던 규슈일보의 모리타 히사시(森田久)사장이 각각 대표를 맡게 됐다.¹⁵⁾ 이후에도 중앙지들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계속하던 지방의 신문사들은 1942년 1현1지(一県一紙)라는 전시체제하 신문통합정책에 의해 결국 종간을 맞이하게 된다.

14) 新聞研究所編(1940)『日本新聞年鑑 昭和16年』新聞研究所, p.120.

15) 앞의 책, 西日本新聞社(1978) pp.380-381.

4. 경성일보와 나고야신문 연재소설 비교

앞에서 지방신문사 간의 제휴를 통한 신문연맹의 결성을 주장했던 후쿠오카 일일신문의 편집장 아베 조타로의 글에는 소설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볼 수 있다.

어떤 문호의 작품, 혹은 학자의 발표를 이와 같이 멀리 떨어진 두 신문이나 세 신문이 동시에 게재한다고 해서, 그 문호나 학자가 반드시 이것을 기피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뛰어난 창작이나 금욕과 같은 논문이 넓은 범위의 독자의 이목을 끌게 되어, 한층 더 세상에 알려져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사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 고려해야 할 것은 소설, 창작 등의 소화력이 어떤 의미에서 감퇴하는 것에서 오는 영향이지만,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방법이 실행된다면 문단에 일종의 등급과 같은 것을 촉진할 동기도 되고, 또한 원고료도 공동 분담하여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더 좋은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된다.¹⁶⁾

같은 신문에 작가의 동일한 작품이나 글이 동시에 실린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많은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고, 또한 각 신문사가 공동으로 원고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만큼 작품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신문연맹의 신문사들이 아베의 제안처럼 같은 소설을 어느 정도 동시 게재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연맹이 결성된 이듬해인 1931년 2월 25일자 아사히신문에는 「일본신문연맹 현상소설모집(日本新聞連盟の懸賞小説募集)」 광고를 통해 가맹 4사 간의 연재소설의 동시 게재를 볼 수 있다.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 나카무라 무라오(中村武羅夫), 기쿠치 간(菊池寛)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1만 2천 엔을 총상금으로 하는 현상소설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광고에는 현 문단을 「침체의 얼음으로 덮인 문단에 일석(一石)을 던져, 그 갈라진 틈으로 뛰어나가는 거대한 물고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까. 프로, 에로 혹은 그로의 소식에 지친 문단은, 요컨대 고전에도 싫증을 내고, 신작에

16) 앞의 책, 阿部暢太郎(1993) p.48.

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본신문연맹의 현상장편소설모집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같은 광고문에는 일본신문연맹에 대한 소개글도 볼 수 있는데, 「4사 연맹의 실현은 일대 신문왕국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어, 단연 신문계의 왕좌를 점하는 것으로 이 신문계의 경이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소설모집에 응모한 작품은 무려 3,166편이나 됐고, 수석은 우치다 신하치(内田新八)의 「군맹유죄(群盲有罪)」, 차석은 다니구치 기요코(谷口清子)의 「백색 무지개(白色の虹)」와 다부치 노보루(田淵昇)의 「도회의 명상(都會の冥想)」이 당선됐다. 당선작은 1932년 새해부터 「도회의 명상」, 「군맹유죄」, 「백색 무지개」순으로 일본신문연맹의 4개 신문사의 지면을 장식하게 됐다.¹⁷⁾ 현상소설 이벤트 외에도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무희의 달력(舞姫の曆)」이 작가의 첫 신문장편소설이라는 문구와 함께 1935년 1월부터 동시에 연재됐다.¹⁸⁾

이에 반해 토요일에 가입한 신문사들은 긴밀하게 연재소설의 의뢰와 동시 게재를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고야신문을 살펴보면 1906년 11월 3일부터 ‘흑법사(黒法師)’라는 필명으로 와타나베 가테이(渡辺霞亭)가 「황국백국(黃菊白菊)」이라는 작품을 이듬해 2월 27일까지 총 111회 연재하는 등, 창간 초기는 와타나베 가테이와 같은 지역출신 작가가 주로 작품을 연재하고 있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이 되면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나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와 같은 중앙문단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나고야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게 된다. 1933년에 토요일 결성 이후 경성일보에 게재된 연재소설과 비교해 보면 <표1>과 같이 다수의 작품이 오랜 기간 동안 동시에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1933년에 구노 도요히코(久野豊彦)의 「봄의 태양(春の太陽)」을 시작으로, 1942년에 연재된 다케다 도시히코(竹田豊彦)의 「사랑의 적도(愛の赤道)」까지 총 36편의 작품이 두 신문에 동시 게재됐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제목으로 연재됐지만, 경성일보에 실린 고지마 세이지로(小島政二郎)의 「아내(妻)」, 가와구치 마쓰타로(川口松太郎)의 「다 못 본 청

17) 아사히신문 「일본신문연맹의 현상소설 당선결정(日本新聞連盟の懸賞小説當選決定)」 1931.12.24.조간9면. 『西日本新聞百年史』의 후쿠오카일일신문 연재소설 목록에서도 위의 세 작품이 실제로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662.

18) 앞의 책, 中日新聞社社史編纂室(1987) p.201.

19) 나고야신문에 게재된 연재소설목록은 나고야시 쓰루마이 도서관에 소장된 『나고야신문 축쇄판(名古屋新聞縮刷版)』(2011)을 토대로 작성했다. 또한, 대만일일신보의 연재소설목록은 中島利郎·橫路啓子編(2014) 『『台灣日日新報』近代文學關係作品目録 昭和編・1926~1944』를 참고했다.

춘(見果てぬ青春)」, 가이온지 조고로(海音寺潮五郎)의 「베니에만다라(紅繪曼荼羅)」, 오시마 핫카쿠(大島伯鶴)의 「쾌남자(快男子)」, 가토 다케오(加藤武雄)의 「남풍의 노래(南風の歌)」, 히사오 주란(久生十蘭)의 「격류(激流)」가 나고야신문에서는 각각 「유부녀정토(人妻淨土)」, 「무희(舞姬)」, 「에도도화진(江戸桃花陣)」, 「니레 한쿠로(仁礼半九郎)」, 「구로시오(黒潮)」, 「사랑의 행방(愛情の行方)」의 제목으로 연재됐다. 추가로 조사된 대만일일신보의 경우는 나고야신문보다 많은 총 38편의 작품이 경성일보의 연재소설과 동시에 게재됐다. 내지의 나고야신문이 1현1지 신문통합정책으로 인해 신아이치와 합병된 이후 연재소설의 동시게재는 중단됐지만, 외지에서 발행되던 경성일보와 대만일일신보는 이후에도 같은 연재소설을 동시 게재한 것은 내지의 지방과는 다른 외지의 지방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토요일의 멤버였던 고베신문에는 가타오카 텃페이(片岡鉄兵)의 「꽃에 농담이 있다(花に濃淡あり)」,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의 「하얀 손의 사람들(白き手の人々)」, 고지마 마사지로의 「유부녀정토」, 다케다 도시히코의 「여인장(麗人莊)」, 가토 다케오의 「남풍의 노래」 5편의 작품이 동시에 연재됐다.²⁰⁾ 이와 같은 토요일 신문사들은 주로 오사카의 중앙지들의 지방 진출을 견제하면서, 일본신문연맹과 부수와 연재소설을 경쟁했다. 한 예로 토요일가 하야시 후보(林不忘)의 「단계사젠(丹下左膳)」을 손에 넣었을 때, 일본신문연맹은 구메 마사오(久米正雄)의 연재소설 「남자의 규칙(男の掟)」으로 대항하는 등 중앙지를 주시하면서 일본신문연맹과의 연재소설경쟁을 이어갔다.²¹⁾

<표1> 「경성일보」와 「나고야신문」, 「대만일일신보」에 동시 게재된 작품목록

	京城日報	名古屋新聞	台灣日日新報
1	久野豊彦・田中比左良 「春の太陽」 (8・4・5~8・9・22/149)	(8・3・24~8・9・6/150)	
2	国枝史郎・佐々木格 「侠劍風来坊」 (8・9・23~9・1・29/112)	(8・9・7~9・1・29/129)	
3	菊池寛・志村立美 「生活の虹」 (9・1・1~9・5・18/133)	(9・1・1~9・5・17/135)	(9・1・1~9・5・18/129)

20) 神戸新聞創刊百周年記念委員会社史編集部編(1998) 『神戸新聞百年史資料編』神戸新聞社、p.65.

21) 里見脩(2000) 『ニュース・エージェンシー』中央新書、p.105.

4	林不忘·小田富弥 「丹下左膳」 (9·1·30~9·9·23/233)	(9·1·30~9·9·20/233)	(9·1·31~9·9·24/232)
5	小島政二郎·岩田専太郎 「七宝の柱」 (9·5·19~9·10·3/135)	(9·5·19~9·10·1/135)	(9·5·19~9·10·2/133)
6	吉川英治·山村耕花 「親鸞聖人」 (9·9·26~10·8·10/299)	(9·9·28~10·8·9/299)	(9·9·30~10·8·12/292)
7	三上於菟吉·吉邨二郎 「哭くな、青春」 (9·10·4~10·2·27/142)	(9·10·3~10·2·25/142)	(9·10·3~10·2·28/140)
8	横光利一·宮田重雄 「天使」 (10·2·28~10·7·6/128)	(10·3·1~10·7·6/128)	(10·3·1~10·7·7/128)
9	岸田国土·田中良 「都会化粧」 (10·7·8~10·12·13/159)	(10·7·8~10·12·15/160)	(10·7·8~10·12·15/160)
10	藤井真澄·志村立美 「元寇」 (10·8·13~11·1·9/140)	(10·8·12~?)	(10·8·13~11·12·29/123)
11	吉川英治·山村耕花 「愚禿頭巾」 (親鸞聖人後編) (11·1·10~11·8·1/199)	(11·1·21~11·8·6/198)	「紙衣祖師」 (11·1·7~11·8·4/173)
12	邦枝完二·神保朋世 「御守殿模様」 (11·8·2~12·3·11/210)	(11·8·7~12·3·6/210)	「御殿女中」 (11·8·5~12·3·6/209)
13	片岡鉄兵·一木淳 「花に濃淡あり」 (11·10·22~12·3·26/150)	(11·10·22~12·3·21/150)	(11·10·22~12·3·24/149)
14	田中貢太郎·河野通勢 「暁星双紙」 (12·3·12~12·7·21/113)	「江都春秋」 (12·3·9~12·7·13/126)	(12·3·7~12·7·15/126)
15	吉屋信子·富永謙太郎 「白き手の人々」 (12·3·27~12·8·16/130)	(12·3·22~12·7·31/130)	(12·3·25~12·8·2/131)
16	神田伯治·藤井耕達 「夕立勘五郎」 (12·5·13~12·10·17/139)	(12·5·13~?)	
17	長谷川伸·岩田専太郎 「国定忠次」 (12·7·22~13·4·17/251)	(12·7·14~13·4·19/250)	(12·7·16~13·4·21/238)
18	小島政二郎·宮田重雄 「妻」 (12·8·17~13·1·14/150)	「人妻浄土」 (12·8·2~13·1·8/150)	「女の四季」 (12·8·5~13·1·13/150)

19	一竜齋貞丈・木俣茂弥 「浦生三勇士」 (12・10・19～13・4・19/152)	(12・10・16～13・4・10/152)	(12・10・14～13・3・19/152)
20	川口松太郎・志村立美 「見果てぬ青春」 (13・1・15～13・7・15/170)	「舞姫」 (13・1・9～13・7・17/170)	「舞姫」 (13・1・14～13・7・15/170)
21	海音寺潮五郎・富永謙太郎「 紅絵曼荼羅」 (13・4・20～13・10・4/157)	「江戸桃花陣」 (13・4・21～13・9・30/157)	「江戸桃花陣」 (13・4・22～13・10・5/157)
22	大島伯鶴・今村恒美 「快男子」 (13・4・20～13・11・13/195)	「仁礼半九郎」 (13・4・12～13・11・27/195)	(13・3・20～13・10・10/192)
23	竹田敏彦・伊勢良夫 「麗人荘」 (13・7・16～14・1・17/180)	(13・7・18～14・1・16/180)	(13・7・16～14・1・15/180)
24	村松梢風・中一弥 「開花三世相」 (13・10・5～14・4・9/150)	(13・10・1～14・4・7/150)	(13・10・6～14・4・15/150)
25	小金井芦州・若槻六郎 「柳生旅日記」 (13・11・15～14・7・9/201)	(13・11・29～14・7・29/201)	(13・10・11～14・5・5/201)
26	加藤武雄・富田千秋 「南風の歌」 (14・1・18～14・5・19/121)	「黒潮」 (14・1・17～14・5・18/121)	(14・1・16～14・5・17/121)
27	土師清二・坪内節太郎 「魯西亜船」 (14・4・11～14・8・17/110)	(14・4・8～14・8・16/110)	(14・4・16～14・8・20/107)
28	尾崎士郎・高木清 「空に残れる」 (14・5・20～14・10・19 /150)	(14・5・19～14・10・15 /150)	(14・5・20～14・10・28 /150)
29	一竜齋貞山・矢島健三 「堀部安兵衛」 (14・7・11～15・2・16/185)	(14・8・2～15・3・23/185)	(14・7・25～15・3・7/185)
30	吉川英治・矢野橋村 「三国志」 (14・9・2～17・11・8/950)	(14・8・26～17・8・30/899)	(14・8・25～18・1・17/950)
31	久生十蘭・伊勢良夫 「激流」 (14・10・20～15・2・23/126)	「愛情の行方」 (14・10・16～15・2・21/126)	(14・10・29～15・2・23/113)
32	大島伯鶴・今村恒美 「続快男子」 (15・2・17～15・9・24/185)		(15・3・8～15・11・16/185)
33	竹田敏彦・岩田専太郎 「牡丹崩れず」 (15・2・24～15・9・28/209)	(15・2・22～15・9・25/210)	(15・2・24～15・9・30/210)

34	北村小松·都竹伸一 「世紀の除夜」 (15·9·29~16·2·13/135)	(15·9·26~16·2·12/135)	(15·10·1~16·2·21/135)
35	川口松太郎·伊勢良夫 「老春」 (16·2·14~16·9·15/210)	(16·2·13~16·9·12/210)	(16·2·22~16·9·21/210)
36	山中峯太郎·高木清 「歌はぬ勝利」 (16·9·16~17·2·10/146)	(16·9·13~17·2·6/146)	(16·9·22~16·12·16/83?)
37	竹田敏彦·都竹伸一 「愛の赤道」 (17·2·11~17·10·27/251)	(17·2·7~17·8·30/204) *신아이치와 합병으로 인해 연재가 중단됨	(17·3·1~17·11·22/251)
38	吉川英治·矢野橋村 「後三国志」 (17·11·10~18·9·14/243)		(18·1·19~18·11·5/244)
39	中野実·三芳悌吉 「大いなる祭」 (17·12·8~18·7·9/180)		(17·12·8~18·7·11/180)
40	海野十三·村上松次郎 「椰子」 (18·7·10~19·4·23/204)		(18·7·12~19·3·12/168?) *대만일일신보 중간으로 인해 연재중단
41	村松梢風·中一弥 「大和水軍」 (18·9·15~19·2·28/126)		「倭水軍」 (18·11·16~19·3·31/ 112?) *대만일일신보 중간으로 인해 연재중단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경성일보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동시대 내지 일본과 만주, 대만과 같은 외지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의 연재소설을 조사했다. 특히, 동시 게재율이 높은 내지의 나고야신문을 하나의 샘플로 선정하여 연재소설목록을 데이터화하고 그 배경을 고찰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오사카의 양대 신문들의 지방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의 유력 신문들은 다른 지방의 신문들과 함께 ‘신문 트러스트’와 같은 형태의 지방신문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와 같이 결성된 연합체의 협약 내용에는 공동으로 연재소설을 모집해서 동시에 게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고야신문을 중심으로 내지와 외지의 신문들로 구성된 토요일회는 1933년부터 많은

작품들이 동시 연재됐지만, 1942년 내지의 1현1지 정책에 의해 연재는 중단된다. 하지만 외지에서 발행되던 경성일보와 대만일일신보가 그 후로도 같은 작품이 동시 연재된 것은 내지의 지방과는 다른 외지라는 지방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29년에 「경일운동호(京日運動號)」를 발행하여 야구, 정구 등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나 캠프, 강연회 등에 힘을 쏟고 있던 경성일보사는 1930년 2월 12일부터 자본금을 50만 엔으로 늘린다. 또한 영어신문인 「서울프레스」를 합병하고, 매일신보를 8페이지로 늘리고, 활자를 7포인트 13단으로 채용했다.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발발함에 따라 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경성일보사는 1932년 7월 하순부터 50일간 만몽(滿蒙)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음해인 1933년에는 발행 8천호를 기념하는 축하회를 개최하면서, 금강산 소가(小歌), 신흥조선의 노래(唄)를 모집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이처럼 1930년대 초의 경성일보사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신문사의 리뉴얼을 단행했다. 또한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몽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신문사의 새로운 약진을 꾀하기도 했다. 내지의 나고야신문 및 외지의 여러 지방신문과 토요일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도 이러한 약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앞에서 언급한 내지 신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되는 「아사히신문 외지판」에 대한 위기감과 경계심으로부터 내지와 외지의 지방 신문사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내지신문과 외지신문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더욱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추후 <표1>의 연재소설의 구체적인 내용분석과 함께 일본신문연맹과 토요일에 가입한 신문들의 추가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小野秀雄(1982) 『日本新聞發達史』 五月書房、p.476.
 阿部暢太郎(1993) 「地方新聞の聯盟」 復刻版 『新聞總覽昭和2年版』 大空社、pp.47-48.
 神戸新聞創刊百周年記念委員會社史編集部編(1998) 『神戸新聞百年史』 神戸新聞社、p.643、646.
 神戸新聞創刊百周年記念委員會社史編集部編(1998) 『神戸新聞百年史資料編』 神戸新聞社、p.65.
 山陽新聞百二十年史編集委員會編(1999) 『山陽新聞百二十年史』 山陽新聞社、p.175.
 高木健夫(1987) 『新聞小説史年表』 国書刊行会.

- 里見脩(2000) 『ニュース・エージェンシー』 中央新書、p.105.
新聞研究所編(1933) 『日本新聞年鑑 昭和9年』 新聞研究所、pp.88-89.
新聞研究所編(1940) 『日本新聞年鑑 昭和16年』 新聞研究所、p.120.
中日新聞社社史編纂室 (1987) 『中日新聞創業百年史』 株式会社中日新聞社、p.102、179、201、
pp.154-155.
中島利郎・横路啓子編纂(2014) 『『台湾日日新報』近代文学関係作品目録昭和編』(1926~1944)
西日本新聞社(1978) 『西日本新聞百年史』 西日本新聞社、p.342、662、pp.380-381.
山田公平(1997) 「名古屋新聞の自由主義的経営体制の展開-デモクラシー期から戦時体制期へ-」 『メディア
史研究』 第6号、ゆまに書房、pp.44-45.

신문자료

- 朝日新聞 「日本新聞連盟の懸賞小説募集」 1931.2.25.朝刊1面.
朝日新聞 「日本新聞連盟の懸賞小説当選決定」 1931.12.24.朝刊9面.
双光エシックス制作(2011) 『名古屋新聞縮刷版』 中日新聞社.

논문 투고 일자 : 2020. 06. 24.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要旨>

京城日報と内地・外地の日本語新聞の連載小説の比較研究
—名古屋新聞を中心に—

嚴基権

本論文は、植民地朝鮮で発行された京城日報に連載された連載小説を同時代の外地と内地新聞の連載小説と比較研究する。京城日報に掲載された長編小説の書誌情報を直接調べてみると、同じ作品が内地の地方新聞はもとより台湾と満洲のような外地の新聞にも同時に掲載さ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

そこで、本論文ではその中でも名古屋新聞を一つの事例として取り上げて、どのような作品が外地と内地の新聞に同時に連載されたのか、また、その背景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考察した。

A comparative study of a serial novel in the *Keijo Nippo* and
overseas/domestic Japanese newspapers:
With a focus on *Nagoya Shinbun*

Eom, Ki-Kweon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a serial novel published in the *Keijo Nippo*, which was published in colonial Chosun, with a serial novel published in overseas/domestic Japanese newspapers of the same period. When directly consulting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e feature novel published in the *Keijo Nippo*, it can be observed that the same works were published in both local newspapers and overseas newspapers such as those of Taiwan and Manchuria.

Therefore, in this paper, we used *Nagoya Shinbun* as an example to identify which works were simultaneously published in overseas/domestic Japanese newspapers and to determine their background.